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 현대불교

**인도 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인도돕기)

## 템플 스테이 대학교양과목 됐다

### 중앙대 내년부터 3학점 '내마음 바로보기' 신설

산사체험프로그램인 템플 스테이(Temple Stay)가 대학 교양학부의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됐다.

중앙대는 10월 2일 열린 2004학년도 교양과목 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학기부터 산사체험프로그램인 '내마음 바로보기'를 3학점짜리 교양 선택교목으로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지난 97년부터 1학점짜리 계절학기 과목을 운영해 오고 있던 하지만 일반대학에서 학기 중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마음 바로보기'는 공주 마곡사에서 2박3일 일정으로 다섯 차례 실시되며 수강인원은 한 회당 40명씩 200명 정원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되돌아보는 명상시간, 108배 및 새벽술집 걷기 명상, 발우공

수강 정원 40명...마곡사에서 2박3일 5회

명상·상담 통해 마음 열려 가는데 초점

양, 타인의 마음 받아주기, 자기 마음 열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다른 교과목과의 형평성을 고려, 2박3일의 산사체험프로그램 참가 외에 6시간의 봉사활동을 첨가했다.

이 학교 교양학부 최달호 교수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생존경쟁 속에서 대학생들이 정신적인 황폐화·공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신적 여유를 찾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입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을 경

우 헛수와 수강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프로그램 진행과 평가를 맡게 될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은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역시 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셈"이라며 "너무 뻔뻔하게 뭔가를 가르치기보다 명상과 상담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열어가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중앙대의 교양과목 채택은 갈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는 산사체험프로그

램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사체험 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나은펄을 필두로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한일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월 26-28일 전도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실시할 정도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템플 스테이를 외국인 대상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뽑기도 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알리는 데 절보다 좋은 곳은 없다"며 "사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원각사지 10층석탑 · 보호각 균열

국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석탑(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내)의 2층 지붕돌에 최근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균열이 발생했다. 탑 보호를 위해 99년 설치한 유리 보호각(사진 오른쪽 위)에도 금이 생겨 종합적 보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사진=박재완 기자

### 김태복 장군 제적은 위한 '재심 통해 무죄증명 할 것'

법당 건립 시주금이 뇌물로 간주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태복 장군이 박달당한 계급과 직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9월 25일 헌법 군 인사법 규정의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김태복 장군이 지난 4월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 장군은 육군 소장으로 명예퇴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헌법 군 인사법은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의 사유에 넣고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 장군은 "특가 법상의 선고유예 판결은 아직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 수재민들 고통 덜어주세요

태풍 '매미'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자비심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불교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수재민 돕기 성공모금 캠페인을 벌입니다. 수재민들이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불자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주최 :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 · 현대불교신문사 · 법보신문사 · 불교신문사 · 주간불교신문사 · 현대불교신문사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11-991(재)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3989(재)불교중앙교원
- ※성금 접수처 및 문의 :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735-5864)

### 감동의 신행체험수기 공모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 신론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9번째를 맞습니다. 가슴속에만 쫓겨 담겨있던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지요.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주가 될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회장님이 신설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4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visuhy@buddhapia.com
- 접수 마감: 12월 13일

200자 원고지 30매... 12월 13일 마감

- 대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분사 사장상)
- 특별상
- △총단협의회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 △관음종 총무원장 △총화종 총무원장
-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신수회장

※응모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

### 조계종 통합신도회 출범

18~19일 감사 유스호스텔서 전진대회

내년 3월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10월 18-19일 공주 감사 유스호스텔에서 '신도회 통합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양 단체 대의원과 지역별 신도단체 주요 인원·실무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하는 통합 전진대회는 그간 지역이나 단체별로 진행돼 오던 통

합 신도회의 사업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은 "통합 신도회의 골격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신도법 관련 종현·종법 개정, 조직 구성 등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통합 출범까지 8부 능선을 넘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도롱뇽(사 진)이 원고가 되어 환경부장관을 고소하는 이색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고발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반대 전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천성산전국비대위)가 준비 중인 재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재판이다. 도롱뇽을 대신할 소송대리인은 지음스님이 맡는다. 천성산전

### 도롱뇽이 환경부장관 고소

국비대위측은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쳤고 서류 준비가 진행 중이다. 도롱뇽이 환경부장관을 고소하는 이번 재판은 고속철 공사철도고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천성

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법적 보호종·식물 40여종을 한 종도 보고하지 않는데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도롱뇽마저 빠뜨릴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 천성산전국비대위는 "천성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대신해 도롱뇽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라며 "인간 위주의 사고와 개발의 면피

부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상징적인 재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새, 나무가 각각 원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원고 자격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재판이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서식지 파괴를 이유로 토끼가 원고가 되었던 재판에서 토끼가 승소한 판례가 있다. 개발 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환경재판의 새로운 상징이 될 도롱뇽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천미희(부산주재 기자)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 구독 신청 안내
-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53-1196 제주: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 고려목판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안내문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가야산 해인사는 천이백년의 긴 세월 동안 화엄의 근본도량으로서 중생들을 일깨우고 불자들의 신앙적 귀의처가 되어왔으며, 오백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입니다.

해인사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고려목판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신앙심 고취를 위한 '보살계 수계법회 및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가야산 해인사에서 봉행하는 「목판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법회 및 영가천도 법회」에 신도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오며, 고려 목판 팔만대장경과 불법이 이 땅에 오래 머물기를 우리 다함께 발원합니다.

이번 9월 불사 때 천도하기 위해 모시는 위패는 해인사에서 봉행하는 1029일 천도제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특별히 집안에서 꼭 모시고 싶은 중요한 조상님이나 주변에서 억울하게 가진 분들의 위패만 모시고 해인사에서 봉행하는 1029일 천도제에 동참하지 못한 신도님들은 시대와 친정의 조상님을 이런 기회에 많이 모시기 바랍니다.

오백대중이 상주하는 한국최고의 수행도량에 정성껏 천도를 모시고 나면 신도님 스스로 잘 모셨다는 느낌이 올 것 입니다. 이번 음력 9월14일~15일 1박2일간 큰 스님들을 모시고 올리는 목판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수계법회와 영가천도법회에 이웃과 함께 많은 동참바라며 이차 인연 공덕으로 불자님들의 가정에 안녕과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원만히 성취되고 구경에 성불하도록 우리 다함께 기도 발원합니다.

불기 2547년 10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수봉 세민 합장

### 법회일정안내

- **중 명**: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법전 대종사
- **보살계 초청법어**: 조계종 원로위원 · 해인총림 동당 가산 지관 큰스님
- **보살계 삼화상**: 전계아사리 / 도림 법전 대종사 갈마아사리 / 수봉 세민 대화상 교수아사리 / 일장 혜능 대화상
- **법사 스님**: 불사법문 - 종목 큰스님 영가법문 - 혜능 큰스님
- **법회일정**

10월 9일 (음력 9월 14일)	10월 10일 (음력 9월 15일)
입재	영가시식
예불기도	오전 4시
보살계법문	오후 6시
영가천도 대량관육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4시
	오후 7시30분
	수계식
	오전 8시

- **보살계 동참금**: 삼만원
- **영가 동참금**: 1위당 만원
- **접수처**: 종무소 / 055-934-3000~3 원주실 / 055-934-3087 천도제 사무실 / 055-931-8771 / 934-3105~6 Fax / 055-934-3010
- **온라인 접수**: 동 협 843174-51-003929 예금주: 해인사 우체국 611806-01-000327 예금주: 해인사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후 전화 확인 바랍니다.